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민감성이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구옥희, 유영미*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Ethical Values and Ethical Sensitivity on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Ok-Hee Koo, Young Mi Ryu*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c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 4학년 35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test, ANOVA/Kruskal-Wallis test, Pearson 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윤리적 민감성 중에서 환자중심간호영역이었으며($\beta=0.258$), 윤리적 가치 중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beta=0.153$)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beta=0.131$)가 있는 경우, 윤리적 민감성 중 전문적책임영역($\beta=0.101$)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상의 변수들은 인성의 4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4.960, p<.001$). 본 연구를 통하여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성 함양을 위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학제적 융합교육 수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 융합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thical values and ethical sensitivity on character in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A total of 356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0. T-test, ANOVA/Kruskal-Walli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was patient oriented care in ethical sensitivity ($\beta=0.258$), followed by nurse-colleague relationship among ethical values ($\beta=0.153$), religion ($\beta=0.131$),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ethical sensitivities ($\beta=0.101$), and the above variables accounted for 43.3% of character ($F=44.960, p<.001$). This study confirmed that ethical values and ethical sensitivity ar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character and convergence course integrating above factors needs to be provided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Ethical sensitivity, Character,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

간 영역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의 영역은 대상이 인간이며 인간은 신체적·사회적·심리적·영적

*Corresponding Author : Young Mi Ryu(youngmiryu@bu.ac.kr)

Received June 8,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3,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요구를 가진 복잡한 존재이므로 단순한 과학 기술만으로는 간호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특히 인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간호사의 자질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인성이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인성은 인간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옳은 것을 사랑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1]. 또한 타인을 대하는 자세인 배려, 성실함, 타인 존중 등은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고 접촉해야 하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이다[2]. 간호대학생은 전공 특성상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주기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과중한 학습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3]. 간호대학생이 과중한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공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전문직업관 확립에 기초가 되며, 대상자 간호와 간호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성 함양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4]. 그러나 대학 입시를 위해 획일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문 간호 지식과 술기뿐만 아니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식과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이 급속히 증가하고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어 지식 교육 외에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5]. 간호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보면[6], 간호학과 교수들은 인성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 요구도도 높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충분히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배아복제,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낙태와 같은 윤리적 문제들이 보건의료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은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으므로[7],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에게 과학적 지식과 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올바른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돕고 윤리적 행위를 위해 필요한 윤리적 민감성과 윤리적 가치인식 능력은 윤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돕는다[8]. 우리나라 임상 간호 분야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의무주의를 기저로 하고 공리주의적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적 입장을 선택하며 원칙들 간의 상충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9]. 윤리적 민감성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지각하고, 행동의 결과가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으로[8],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을 고려하고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적 능력과 함께 공감 능력과 같은 심리적 능력 또한 필요하다[10].

간호는 인본주의적이고 이타주의적인 윤리적 가치관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간호사는 자신의 인성적 특성과 가정환경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며 임상실무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1]. 인성은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며 인성과 가치관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므로[12],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인성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간호교육자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 교육에서는 인지적 측면의 학습 성과인 지식 교육은 강조되어 왔으나 정의적 측면의 인성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에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서도 학생 인성 교육과 간호실무의 윤리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3]. 교육 과정 외 활동으로 봉사 활동이나 주기적인 인성 특강, 상담 프로그램 등이 개설된 학교의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나[6], 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 연구는 2012년 간호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6]를 시작으로 하여 간호대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연구[14], 인성 관련 영향 요인이나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2,15,16]이 이루어져 왔다. 간호대학생과 간호교육자들의 인성 중요도와 인성교육 요구도는 높으므로[6,17],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윤리 및 인성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 수준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의 관계를 파악한다.
-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대상자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와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중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간호와 관련된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Win 3.1.9.2 프로그램[18]을 이용한 결과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0.06로 설정하고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로 하였을 때 354명이 산출되었다. 총 4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6부를 분석하여 표본 수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된다.

2.3 연구도구

2.3.1 윤리적 가치

윤리적 가치는 Lee[19]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Lee 등[20]이 간호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인간생명영역 8문항, 간호사대상자관계영역 7문항, 간호사업무관계영역 6

문항,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절대적 공리주의 입장을 1점, 절대적 의무주의 입장을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에서 도덕적 가치인식이 확고하고 긍정적임을 뜻한다.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하에 어떤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선이고 결과가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윤리적 입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무주의는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임상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최대의 이득을 가져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공리주의적 관점이며,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의무론적 관점이다[19].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Lee 등의 연구[20]에서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2.3.2 윤리적 민감성

본 연구에서는 Lützné[21]의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Han 등이 수정·보완한 한국판 도구[22]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의 7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 7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환자중심간호영역 5문항, 전문적책임영역 7문항, 갈등영역 5문항, 도덕적 미영역 6문항, 선행영역 4문항 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였다.

2.3.3 인성

인성은 Lee 등[23]이 개발한 대학생용 바롬인성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60개 문항, 3개 하위 영역 즉, 인지영역(도덕적 인식 4문항, 도덕적 가치를 앎 7문항, 도덕적 추론 3문항, 반성적 의사결정 3문항, 자기이해 3문항,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의영역(양심 5문항, 자기존중 4문항, 감정이입 5문항, 선에 대한 사랑 4문항, 자아통제 2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행동영역(의지 및 능력 7문항, 습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영역은 23개 문항, 정의 영역은 25문항, 행동영역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4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 [24]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의 수준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의 차이는 t-test/ANOVA로, 사후 분석은 Scheffe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는 하위 그룹의 표본 수가 적어 Kruskal-Wallis H test로 분석하였다.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생명영역을 제외한 윤리적 가치의 하위 항목, 윤리적 민감성의 하위 항목, 종교, 전공결정자, 전공만족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입력하였다. 회귀 분석 후 회귀표준화 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201804-HR-001). 연구보조원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교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모두 35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18±3.66세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54.8%(195명), 4학년이 45.2%(161명)였다. 남학생의 비율은 14.6%(52명)이었고,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3.0%(188명)였다. 출생 순위는 첫째가 50.6%로 가장 많았고(180명), 성장지는 대도시에서 자란 경우가 55.9%(199명)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을 전공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은

85.7%(305명)의 학생들이 본인이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 67.4%(240명)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56)

Variables	Categories	n	%
Age(year) (N=355)	Mean±SD	22.18±3.66	
Grade	3	195	54.8
	4	161	45.2
Sex	Female	304	85.4
	Male	52	14.6
Religion (N=355)	Yes	188	53.0
	No	167	47.0
Birth order	First	180	50.6
	Second	145	40.7
	Third and more	31	8.7
Growing place	Big city	199	55.9
	Medium sized city	121	34.0
	Rural area	36	10.1
Determinant of major	Self	305	85.6
	Others	51	14.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240	67.4
	moderate	104	29.2
	Dissatisfied	12	3.4

3.2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 수준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 인성 수준은 표 2와 같다(Table 2 참고). 윤리적 가치 수준은 평균 3.35±0.39로 나타나 의무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하부 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간생명영역이 2.80±0.58로 가장 낮은 의무주의적 성향이었으며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이 3.82±0.60으로 가장 높은 의무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윤리적 민감성은 7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평균은 4.88±0.57이었으며 하부 영역 중 환자중심간호영역이 5.52±0.82로 가장 높았으며 도덕적의미영역이 4.38±0.84로 가장 낮았다. 인성 수준은 6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평균 4.71±0.54로 나타났다. 인성의 하위 척도를 살펴보면, 정의영역이 4.84±0.59으로 가장 높았고 인지영역이 4.79±0.60이었으며 행동영역이 4.34±0.74로 가장 낮았다.

Table 2. Levels of Ethical Values, Ethical Sensitivity, and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N=356)

Variables		Mean	SD	
Ethical values	Human life	2.80	0.58	
	Nurse-patient relationship	3.56	0.60	
	Nurse-nursing tasks relationship	3.55	0.61	
	Nurse-colleagues relationship	3.82	0.60	
	Total	3.35	0.39	
Ethical sensitivity	Patient-oriented care	5.52	0.82	
	Professional responsibility	5.20	0.74	
	Conflict	4.60	0.80	
	Moral meaning	4.38	0.84	
	Benevolence	4.64	0.68	
Total	4.88	0.57		
Character	Knowing factor	Moral awareness	4.99	0.64
		Knowing moral value	4.77	0.72
		Moral reasoning	4.97	1.19
		Reflective decision making	4.81	0.73
		Self-understanding	4.69	0.75
		Awareness of self-initiated life	4.45	0.83
		Subtotal	4.79	0.60
	Feeling factor	Conscience	4.95	0.71
		Self-respect	4.52	0.86
		Empathy	4.93	0.83
		Loving the good	5.16	1.68
		Self-control	4.71	0.84
		Community spirit	4.67	0.67
		Subtotal	4.84	0.59
	Behaving factor	Will and competence	4.50	0.73
		Habit	4.11	0.91
		Subtotal	4.34	0.74
Total		4.71	0.5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의 차이는 표 3과 같다(Table 3 참고). 윤리적 가치는 여

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의무주의 성향을 보였고 (t=1.978, p<.05),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더 의무주의 성향을 보였으며(t=2.466, p<.05), 성장지가 대도시인 경우 중·소도시인 경우보다 더 의무

Table 3. The Levels of Ethical Values, Ethical Sensitivity and Character (N=356)

Variables	Categories	Ethical values		Ethical sensitivity		Character	
		Mean±SD	t/F/χ²	Mean±SD	t/F/χ²	Mean±SD	t/F
Grade	3	3.33±0.38	-1.276	4.92±0.52	1.491	4.68±0.51	-1.362
	4	3.38±0.40		4.83±0.62		4.75±0.57	
Sex	Female	3.37±0.40	1.978*	4.85±0.56	-2.285*	4.69±0.53	-1.705
	Male	3.26±0.39		5.05±0.60		4.83±0.54	
Religion (N=355)	Yes	3.40±0.41	2.466*	4.90±0.60	0.631	4.81±0.39	3.864*
	No	3.30±0.36		4.86±0.53		4.59±0.53	
Birth order	First	3.37±0.37	0.227	4.91±0.56	1.756	4.76±0.55	1.320
	Second	3.34±0.42		4.82±0.57		4.65±0.53	
	≥Third	3.33±0.39		5.00±0.56		4.73±0.49	
Growing place	Big city(a)	3.40±0.40	3.732* (a>b)	4.90±0.49	1.472	4.76±0.53	2.198
	Medium city(b)	3.29±0.39		4.90±0.64		4.67±0.56	
	Rural area(c)	3.31±0.31		4.73±0.69		4.58±0.46	
Determinant of major	Self	3.36±0.40	0.283	4.91±0.57	1.886	4.74±0.54	2.912*
	Others	3.34±0.33		4.74±0.55		4.51±0.5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3.39±0.39	5.643* (a>c)	4.95±0.51	11.032* (a>b)	4.81±0.52	29.627* (a>b)
	Moderate (b)	3.29±0.37		4.74±0.66		4.51±0.51	
	Dissatisfied(c)	3.07±0.20		4.68±0.56		4.48±0.57	

* p< .05

주의 성향을 보였다($F=3.732, p<.05$).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의무주의 성향($\chi^2=5.643,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전공만족도가 있었다. 남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85, p<.05$).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chi^2=11.032, p<.05$). 인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인성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864, p<.05$), 전공 결정을 본인이 한 학생들의 인성이 타인이 전공 선택을 해 준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t=2.912, p<.05$),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인성이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9.627, p<.05$).

3.4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과의 관계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 인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r=.105, p<.05$)가 있었다. 윤리적 가치의 하부 영역 중 간호사환자관계영역($r=.144, p<.01$)과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r=.238, p<.01$)이 윤리적 민감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윤리적 가치와 인성과의 관계에서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r=.289, p<.01$)를 보였는데 하부영역 중 인간생명영역을 제외하고 간호사환자관계영역, 간호사간호업무관계영역,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에서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윤리적 민감성과 인성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Table 4. Relationships among Ethical Values, Ethical Sensitivity, and Character

(N=356)

	EV_HL	EV_NP	EV_NNT	EV_NC	EV	ES_PO	ES_PR	ES_C	ES_MM	ES_B	ES	Character_K	Character_F	Character_B	Character
EV_HL	1	-.083	.046	-.015	.453**	-.004	-.102	-.061	.006	-.110*	-.072	.022	.011	.126*	.047
EV_NP		1	.637**	.507**	.753**	.305**	.236**	-.046	-.195**	.318**	.144**	.253**	.271**	.016	.230**
EV_NNT			1	.544**	.803**	.249**	.115*	-.122*	-.217**	.286**	.050	.244**	.229**	-.021	.197**
EV_NC				1	.657**	.367**	.303**	.019	-.073	.281**	.238**	.428**	.368**	.172**	.386**
EV					1	.311**	.168**	-.090	-.180**	.260**	.105*	.315**	.297**	.101	.289**
ES_PO						1	.742**	.395**	.334**	.440**	.818**	.583**	.600**	.372**	.610**
ES_PR							1	.488**	.366**	.328**	.851**	.499**	.529**	.373**	.540**
ES_C								1	.488**	.067	.710**	.187**	.280**	.183**	.250**
ES_MM									1	.014	.677**	.129*	.199**	.215**	.198**
ES_B										1	.438**	.238**	.317**	.180**	.287**
ES											1	.467**	.542**	.380**	.535**
Character_K												1	.764**	.573**	.906**
Character_F													1	.657**	.933**
Character_B														1	.794**
Character															1

EV: Ethical value; HL: Human Life; NP: Nurse-Patient relationship; NNT: Nurse-Nursing Task relationship; NC: Nurse-Colleague relationship
 ES: Ethical sensitivity; PO: Patient-Oriented care; P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 Conflict; MM: Moral Meaning; B: Benevolence
 K: Knowing; F: Feeling; B: behaving; * $p<.05$; ** $p<.01$

Table 5. Factors affect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N=356)

Variables	β	t	p	VIF	Tolerance	Durbin-Watson
Constant	2.066	9.744	<.001			1.993
Ethical sensitivity: patient oriented care	0.258	6.480	<.001	2.359	0.424	
Ethical value: nurse-colleagues relationship	0.153	3.927	<.001	1.149	0.870	
Religion (reference: none)	0.131	3.034	.003	1.028	0.973	
Ethical sensitivit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0.101	2.300	.022	2.293	0.436	
F value : 44.960, p-value: <.001, adjusted R ² : 0.433						

=.535, $p<.01$). 윤리적 민감성 하부 영역과 인성과의 관계에서는 환자중심간호영역의 상관관계($r=.610$, $p<.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적책임영역($r=.540$, $p<.01$), 갈등영역($r=.250$, $p<.01$), 도덕적의미영역($r=.198$, $p<.01$), 선행영역($r=.287$, $p<.01$)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윤리적 민감성과 인성의 하부 영역의 관계를 보면 인성의 인지영역은 .467($p<.01$), 인성의 정의영역은 .542($p<.01$), 인성의 행동영역은 .380($p<.01$)이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Table 4 참고).

3.5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인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종교, 전공 선택 결정자,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포함하고 인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던 인간생명영역을 제외한 윤리적 가치의 하위 항목, 윤리적 민감성의 하위 항목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93으로 잔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28-2.359로 10이하여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윤리적 민감성 중에서도 환자중심간호영역이었으며 ($\beta=.258$, $p<.001$), 윤리적 가치 중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beta=.153$, $p<.001$), 종교($\beta=.131$, $p<.05$), 윤리적 민감성 중 전문적책임영역($\beta=.101$, $p<.05$)이 인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변수들은 인성의 43.3%를 설명하였다($F=44.960$, $p<.001$).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표 5와 같다(Table 5 참고).

4. 논의

미래 사회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간호학문에서도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상으로 간호학생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인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과 대학 생활 경험이 윤리적 가치관과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25]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윤리적 가치는 3.35(최대 5점)로 대체로 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윤리적 가치를 본 Koo의 연구[26]에서는 평균 3.4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Kwon의 연구[11]에서의 평균 3.38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간호교육 후 윤리적 가치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27]에서도 간호윤리교육 전 3.51(최대 5점)에서 교육 후 2.71(최대 5점)로 감소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경험한 후 윤리적 가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생명영역이 가장 낮은 의무주의 성향(평균 2.80: 최대 5점)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19,25,28]에서도 인간생명영역이 공리주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인간생명영역에서 의무주의에서 공리주의 성향으로 변화되는 양상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권리 인정을 위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2018년 2월 4일) 및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 합법화 요구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윤리적 민감성은 평균 4.88(최대 7점)이었다. 이는 선행연구[25, 26]에서의 평균 5.10보다 낮은 결과이다. 그러나 3학년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는 3.54(최대 5점)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이전의 연구가 신입생이나 임상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실습 경험이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의 어려운 윤리적 상황이 학생들로 하여금 윤리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리적 민감성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 역할극, 공감적 경청 등의 기법을 활용할 경우 증진될 수 있으므로[30] 윤리교육에서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학생들의 윤리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직접 극본을 쓰고 역할극을 시행해보는 윤리 상황극을 통해 윤리적 민감성을 키워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수준은 4.71(최대 6)이었다. 이는 높은 수준으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Sim과 Bang의 연구[2]에서는 4.42, 임상실습경험을 한 간호학

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16]의 연구 4.6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3, 4학년으로 대학생활을 통해 교내·외 봉사, 농촌봉사활동, 인턴십 등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임상 실습을 포함한 전공 교육으로 정의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사료된다.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정의영역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행동영역이 4.34로 가장 낮았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Kim의 연구[31]에서는 정의영역, 행동영역, 인지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Sim 등의 연구[2]에서는 정의적영역이 4.52로 가장 높았고 인지영역이 4.47, 행동영역이 4.42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행동영역 인성 수준은 여전히 가장 낮게 나타나 학생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인성 교육은 이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된 사회봉사와 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봉사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봉사 활동을 넘어 그 활동에 대한 성찰과 상호 학습을 포함하는 교수전략인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32]을 간호학 교과목에 도입하는 것도 행동적 인성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윤리적 민감성의 하위영역 중 환자중심간호영역과 전문적책임영역, 윤리적 가치 중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교육이 인간의 됨됨이를 키우는 것이라면 도덕적 선량함이나 품위있는 행동 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에 윤리적 가치나 윤리적 민감성 증진을 위한 관심은 절대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인성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종교, 전공결정자, 전공만족도였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행연구[2,16]에서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정서적 지능, 자아-회복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학업성취도와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은 간호윤리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이 교과목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윤

리 교육을 윤리이론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식 진행보다는 문제중심학습법(PBL)이나 역할극(Role play)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을 융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인 AI, VR, AR 등을 윤리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33]. 4차 산업혁명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의료용 로봇 도입과 3D 프린팅 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체 장기 복제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윤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34].

미래 교육에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키워주는 인성 교육은 필수적이어서 국가차원에서도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고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지며 시행되고 있다[35]. 인격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인의 인성은 사회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점점 더 인성적 측면의 역량은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지닌 올바른 인성적 틀 속에서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취업이나 경력개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전공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여겨진다[35].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가 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교과과정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경험을 한 간호학과 3, 4학년 356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윤리적 민감성 중에서 환자중심간호영역이었으며, 윤리적 가치 중 간호사협동자관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윤리적 민감성 중 전문적책임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상의 변수들은 인성의 4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윤리적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이 인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 환경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발달 교육을 위해 철학, 사회봉사, 서비스러닝, 다양한 문학작품과 매체 등을 융합한 간호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들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변수 확인이 요구된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신기술들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 Ryan & T. Lickona. (1992). *Character development in schools and beyond*. WA : CRVP.
- [2]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 [3] J. W. Lee & Y. S. Eo. (2013).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2), 125-134.
- [4] S. Rochester, K. Kilstoff & G. Scott. (2005). Learning from success: Improving undergraduate educ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capabilities of successful nurse graduates. *Nurse Education Today*, 25, 181-188.
- [5] S. Kim, Y. S. Choi, D. Kim, S. M. Kim, S. H. Kim, D. Ahn & Y. Lee. (2008). The educational effect of pre-medical curriculum for a service learn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9, 867-871.
- [6] J. H. Park. (2013).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3321-3332.
- [7] J. H. Shin, S. H. Jeong, M. H. Lee & Y. Yang. (2015). Experiences of ethical issues and needs for ethics educa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3), 327-339.
- [8] J. R. Rest.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Y : Praeger.
- [9] S. S. Han. (1992). *Nature of ethical dilemmas and decision making in hospital nursing practic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0] P. S. Thompkins. (2009). Rhetorical listening and moral sensitivity. *Journal of Listening*, 23(2), 60-79.
- [11] Y. M. Kwon. (2002).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8(1), 17-28.
- [12] J. W. Kim. (2008). The mutual link of a person's human nature and his or her sense of value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05, 127-147.
- [1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Book of evaluation criteria for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http://kabone.or.kr/>
- [14] B. Kim & E. Jeon. (2016). Exploration of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a Classics Book Reading Program as Character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0), 676-686.
- [15] M. Lee & M. Nam. (2017).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6), 427-437.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6.24>.
- [16] J. Kim & H. Kim. (2016). Effects of charact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3(2), 7-28.
- [17] E. Yeon & H. Moon. (2017).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Importance of Personal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7(12), 691-701.
- [18]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al Research Methods*, 39, 175-91. DOI: 10.3758/BF03193146
- [19] Y. S. Lee. (1990).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 249-270.
- [20] S. H. Lee, S. Y. Kim & J. A. Kim. (2007).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2), 145-155.
- [21] K. Lützén, M. Evertzon & C. Nordin. (1997).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practice. *Nursing Ethics*, 4, 472-482.
- [22] S. S. Han, J. H. Kim, Y. S. Kim & S. Ahn. (2010).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17(1), 99-105.

[23] Y. S. Lee, H. Y. Kang & S. J. Kim. (2013).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1, 261-282.

[24] IBM Corp. Released 2011.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NY : IBM Corp.

[25] M. Kim. (2014).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moral development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6] O. Koo. (2016). A study on the changes in ethical values of new nursing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9(39). DOI: 10.17485/ijst/2016/v9i39/103228

[27] O. Koo, Y. M. Ryu & M. S. Kim. (2017, July).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 ethics education to moral sensitivity and moral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in 2017. (pp. 1034-1035). Seoul, Naeha publishing.

[28] S. D. Kim. (2014).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5), 567-575.

[29] M. S. Yoo & K. C. Shon. (2011).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2(2), 61-76.

[30] E. A. Kim, H. Y. Park, & S. E. Choi. (2014).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7(2), 144-158.

[31] S. J. Kim. (2016).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 according to character levels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3(2), 1-19.

[32] J. M. Brown & N. A. Schmidt. (2016). Service-learning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Where is the reflec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2(1), 48-53.

[33] D. Kim & O. Woo. (2018). Reconstruction of discourse on curriculum reconstruction.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9-16.

[34] S. Kim, Y. Kim, J. Kim, J. Lee, & K. Chang.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for workers in health and medical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43-52.

[35] S. J. Park & K. H. Ko. (2014). A study on personality educational method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atient Education*, 11(1), 35-50.

구 옥 희(Koo, Ok Hee)

[정회원]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리더십, 간호윤리
- E-Mail : koh0528@bu.ac.kr

유 영 미(Ryu, Young Mi)

[정회원]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8월 :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내러티브
- E-Mail : youngmiryu@bu.ac.kr